

#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개벽하고 있다

전지전능한 영을 참 구세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일이라는 것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靈的)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이 영적 과 일입니다. 영적 과일은 바로 영(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생명과일이 영생의 영이지 죽음의 영은 생명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과일이나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 복음 3장 5절에 써여 있는 고로 성령이 바로 영생의 영이요 생명과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은 이긴자가 나와서 부여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긴자의 영이 성령이지 그 전에 말한 성령은 전부 다 마귀의 속임수의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이 써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뉘냐 하면 바로 전지전능한 영입니다. 전지전능한 영이 바로 온전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영을 참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분신이 공산주의자 속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세주 되는 이 사람이 <대공약>을 했습니다. 먼저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면 공산주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거지 공산주의 이념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되는 구세주의 분신이 공산주의자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이 사라져 공산주의자들이 다 '나는 이제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구세주의 분신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개벽합니다. 구세주가 사람 속에 마음대로 들랑 거리는 분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마음대로 들랑거려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사람의 분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육중에 들어가서 육신은 떨어져 있을망정 분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에 열심히 나왔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끌지 않으면 한 명도 제단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육살이 할 때에는 TV와 신문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산에 묻었다고도 했고, 이 사람이 이슬성신 내리지 않는 것을 이슬성신 내린다고 속여서 헌금을 걷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기라는 등 이 사람을 헌금사기로 처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헌금사기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에 열심히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승리자가 이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 정도량이 마지막에는 이긴다'고 격양유록에는 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세상이 되는 인간 세상을 없애버리고 인간들을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세상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 세상이 이루어지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제



구세주 조희성님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서 낮이고 밝히고 늘 비치니까 밤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세상이 되면 겨울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름도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봄날씨 같은 날씨 가운데 항상 밤이 없는 고로 잠자지 않는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쾌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광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복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구세주는 재창조주 하나님

구세주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는 재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창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몸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세계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이제 천년 만년이 하루와 같이 빠르게 지나 갑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너무 너무 쾌락이 넘치는 고로 너무 너무 기쁘고 너무 너무 즐거운 영원무궁토록 봄날씨 같은 날씨 가운데 항상 밤이 없는 고로 잠자지 않는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쾌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쾌락 속에서 산다는 걸 상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바로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이제 추운 것도 없는, 말하자면 날씨가 항상 봄날씨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피로한 것을 못 느끼고 항상 기쁨 속에서 사는, 우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세계는 전부가 다 밝히 웃는 얼굴로 사는 세상입니다.

23년 전부터 웃어야 병이 낫고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는 항상 웃는 사람만 사는 세계지 그 세계는 웃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항상 웃어야 됩니다. 웃음 가운데서 행복이 있는 거지 웃지 않는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더러 항상 웃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골난 것처럼 웃지도 않고 골난 사람 얼굴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마귀짓입니다. 마귀 짓이 뭐 나쁜 죄를 저서 마귀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해야, 그래야 바로 마귀짓을 안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미소를 머금거나 웃으면서 제단에 나와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얼굴을 하고 미소를 띄면서 찬송을 부르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뭐가 저리 좋아서 웃나' 할 정도로 웃으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단에서만 웃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부인이나 아이들을 전부 꽃처럼 보는 것입니다. 항상

웃고 앉아 있으면 식구들이 전부 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전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올까, 웃음이 절로 안 나올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이 집에 가서 매일 웃으면서 앉아 있으면 안 믿는 식구들까지 병이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음 꽃을 피우고 있으면 식구들이 전부 다 웃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웃으면 피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피속에서 T림과구가 조성되어 병이 낫는다고 의학박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3년 전부터 웃어야 병이 낫고 웃어야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웃어야 바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창기부터 뭐 불성신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게 은혜지 영생을 주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슬성신이 은혜지 이슬성신이 아닌 불성신이라든지 이제 생수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슬성신이라야 완성의 은혜요,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가 있는 종교예요, 은혜가 없는 종교예요? 은혜가 없는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세주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구세주를 통해서만 영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를 받아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욕기서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6장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말이예요, 없다는 말이예요?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말이 써여 있는데 신약성경에는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써여 있는데 이걸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했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활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무덤이 불란서에 있고 이제 그만 속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은 시체가 불란서에 있는 예수의 무덤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늘로 올라간 예수가 다시 온다고 그것을 믿고 하늘을 쳐다본 휴거 패 사람들, 목이 빠져라라고 하며 암만 쳐다봐야 예수가 오겠어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면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임수의 신이기 때문에 마귀신이 그 휴거패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온다고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건 원래 마귀의 종입니다. 속임수의 신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딱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2003년 6월 20일 말씀 중에서

## 조희성님의 발자취



#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 조희성의 몸을 입고 직접 하는 역사

수 년 만에 집을 찾아 가니 어머니와 딸애가 있었다. 그러나 웬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먹서먹하였다. 대하는 이 사람은 그 제사야 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부모 지식 간에 인사를 해도 반가운 기색이 없었다. 때마침 아들 녀석이 안 보이는 고로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날을 정하고 오랜만에 찾아 간 집을 서둘러 나섰던 것이다.

얼마 뒤 그 약속한 날에 가니 아이들은 없고 어머니만 계시기에 "왜 아이들이 안 보이느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서야 애들이 전혀 아버지 같지 않고 서먹서먹함을 느껴 피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처지와 입장은 도외시키고 순종하다보니 의인의 가족은 말할 수 없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직 온 우주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만 이 한 몸을 던진 것임을 여러분만은 알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죄인이 변하여 하늘의 사람, 의인이 되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발

붙일 곳이 없었다. 이것을 이 은혜 역사(役事)를 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긴자가 된 후 단에 한 번만 서고 나면 뺨골 속이 쑤셔 오고 오한이 나서 벌벌 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 담담을 매일같이 하나 보니 그 오염 받은 죄의 피를 토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에 서서 죄인들의 죄를 역겨워하지 않고 기꺼이 오염 받아 큰 사랑으로 씻어내곤 하였다.

그런고로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긴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다. 평생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연단을 받았고, 자신의 고비 고비를 넘어 다져진 연단이 있는 고로 이런 험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놀음이라면 이런 일을 단 하루라도 할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온 우주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고로 홀출단신으로 무량대수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 억만 번을 패해 오다가 육천 년 기간이 다 차기 직전에 드디어 마귀를



이슬성신은 구세주의 본체이다. 사진 중간에 불명여리가 희오리치는 모습으로 이슬성신이 내렸다

이기시는 데 완전히 성공하셨던 것이다.

지금부터 육천 년 전에 잃었던 2위(位)인 아담과 해와를 완전히 회복하

기 위하여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시사 여러 곳에 아담과 해와 후보를 세워 어떻게 넘어지고 실수하는지 예비로 길러보셨다. 그러고는 그들이 자존

심 교만마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진짜 아담과 해와후보는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한편 자존심을 꺾기 위하여 '마귀 소리'를 듣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고로 해와주님은 '천사마귀'라는 별호가 붙었고, 이 사람에게는 3년 동안 안찰을 안 해 주심으로 '마귀 소리'를 듣게 했던 것이다. 무슨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 역사에 대항하는 일이 없는데도 마귀라고 부르러니가 '천사마귀'라고 명명된 것이다.

대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인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대장 마귀가 바로 자존심 교만 마귀이다. 영모님께서는 진짜 아담과 해와를 기르실 때는 처음부터 숨기시면서 마귀로 불리게 하였고, '나'라는 것을 천대시하며 자존심을 죽이는 데 유리하도록 밀바닥 생활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만약 구세주 후보자가 높은 단에 선 다든지 은혜자이던 것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끈고한 사정이었던 것이다. 삼위일체 전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잃었던 2위의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육천 년 계획이었던 고로 전도관 백오십 만 교인은 아

담 해와를 찾는 데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과거 영모님께서 두 번이나 육중에 가신 것도 아담과 해와를 고도로 사모하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었고, 신앙촌을 세 곳에 건설하신 것도 3위 1체를 상징한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 울타리가 마지막 울타리라고 초창기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앙촌이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해와와 아담 의인의 출현을 알리는 역사를 상징한 것이었다.

십사 만 사천의 수가 차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호로 하나님과 해와와 아담을 의미한 말이었다. 보통 인간들은 사람 숫자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리워진 것이다. 십사 만 사천의 의인이 완성되니 기장의 영모님은 드디어 1981년 1월 1일을 제 1회 '이슬성신절'이라 하였고, 그때부터 전도관을 팔아치우면서 해산 작전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고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육천 년 간 마귀와 더불어 싸워 오면서 그 뜻을 이루는 계획된 역사지, 조희성이 개인의 생각으로 인간적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